| 현불 논단 |

언론, '포스트 포털' 대비하라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아마존에 매각된 '워싱턴포스트'
2013년 신문업계의 대사건 기록
IT기업, 언론사 인수 세계 추세

국내 종이신문 구독자 감소 꾸준
온라인 강화 노력에도 성과 부진
공룡 '포털사이트'가 걸림돌 작용
뉴스 유통 초점… 저널리즘 상실

디지털 시대, 저널리즘도 변화를
테크놀로지 맞게 뉴스 생산해야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과 함께 미국의 3대 유력 일간지로 통한다. 1877년 창간한 전통의 워싱턴포스트는 대통령 닉슨의 측근들에 의해 숨겨졌던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상을 밝혀낸 특종을 통해 닉슨의 대통령직 사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미국 신문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의 〈워싱턴포스트〉가 2013년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에게 인수됐다. 이는 세계를 대표하는 전통 있는 유력 일간지가 IT기업의 손에 넘어간 신문업계의 대사건으로 기록됐다.

인수 당시 제프 베이조스는 아마존의 플랫폼 강화를 위해 뉴스 콘텐츠를 확보하는 게 필요했다. 그는 도널드 그레이엄 〈워싱턴포스트〉 회장을 만나 3시간동안 대화를 나눈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레이엄 회장이 제시한 2억 5000만 달러의 인수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 별도의 협상 없이 즉각적인 인수결정을 내렸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신문산업이 위기에 처해있다. 종이신문의 판매부수가 감소하고, 독자들이 종이신문 대신 인터넷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신문이 IT기업에 매각되는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뉴스의 이용이 인터넷으로 옮겨가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국내 신문산업 실태를 보더라도 종이신문의 구독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신문사들은 디지털 뉴스 이용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온라인 부문을 강화하고 인터넷 독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이다. 포털은 이미 2005년부터 개별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압도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인터넷 뉴스 이용자는 포털로 대거 이동했다. 2011년 55.4%였던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2021년 79.2%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성인의 대다수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에서 2021년 사이 신문 이용률은 약 36% 감소했다.

신문을 통한 뉴스의 이용이 감소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뉴스 이용이 포털로 집중하는 현상은 우려할 일이다.

저널리즘의 가치는 단순히 뉴스의 생산과 유통에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담론과 여론의 형성을 통해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데에 있다. 언론 산업이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위기와 혼돈을 겪게 되면서 저널리즘의 가치가 서서히 상실되어 가는 현상은 우려스럽다. 거대 이용자를 확보한 몇몇 포털이 뉴스 콘텐츠 이용의 주 관문이 되면서 뉴스 생산 권력보다는 뉴스 유통 권력이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됐다. 몇몇 포털이 다수의 언론사를 압도해 여론을 독점하는 현상이 고착화하는 일을 바람직하지 않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단계는 이제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등으로 확장됐다. 포털을 포함한 인터넷 기업들은 이런 테크놀로지에 주목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제프 베이조스가 〈워싱턴포스트〉을 인수한 사례에서 보듯이 자본력과 기술력이 집약된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기업에 언론사가 맞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대 저널리즘은 뉴스와 테크놀로지의 융합이기에, 언론사와 언론인은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적용에 대해 뉴스 생산 수준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 테크놀로지에 대한 낮은 관심과 몰이해, 그리고 외면과 포기가 가져온 결과가 포털 종속으로 귀결된 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포스트 포털 시대를 대비하여야 한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나도 무영탑 되어 보리라

정오에는 태양이 머리 위 꼭대기로 떠올라 그림자가 없다. 이때 모든 탑은 불국사의 무영탑(無影塔)이 된다. 누구나 마음속의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면 불성이 환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리라.

〈벽암록〉 18장 '충국사(忠國師)의 무봉탑(無縫塔)' 도 같은 맥락이다. 무봉탑이란 어느 곳도 꿰매지 않은 천의무봉(天衣無縫)을 뜻한다. 하늘 옷은 꿰매지 않은, 즉 삼라만상은 꿰매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완전하다는 것이다.

당나라 숙종 황제가 충국사라고도 불리는 혜충(慧忠) 국사에게 "스승님께서 입적하시면 무엇을 해 올릴까요"라고 물었다. 원만 무애한 경지에 이르러 생노병사를 끝내려는 혜충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혜충은 무봉탑(無縫塔)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 진리를 깨달으면 일체가 무봉탑인 것을, 황제도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무봉탑의 속뜻을 깨달으라는 부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숙종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탑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요"라고 다시 물었다. 하는 수 없이 혜충은 제자 탐원(耽源)에게 탑 모양을 말해 두었으니 내가 죽거든 물어보라고 했다. 혜충이 입적하자 황제는 그를 위해 탑을 세우려고 탐원에게 그 형태를 물었다. 탐원은 '상지남(湘之南) 담지북(潭之北)' 이라고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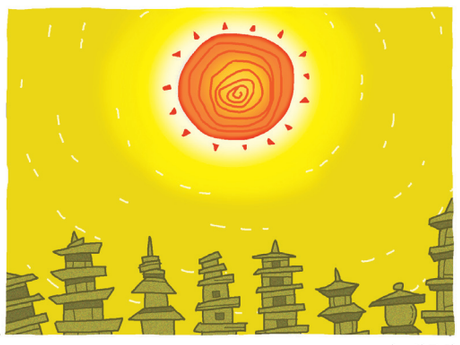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탐원은 계속 게송을 읊었다. "中有黃金充一國 無影樹下合同船 瑠璃殿上無知識."

"거기에는 황금이 있어 온 나라에 가득하다", 시방세계에 가득 찬 것이 있다면 황금(불법)뿐이다. 우리가 불성(佛性)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 함께 타는 배"가 된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정오의 나무처럼 그림자가 없다. 무영탑이 된다는 것이다.

탐진치(貪瞋癡)와 에고가 없는, 그림자가 없는 사람들은 다 함께 부처라는 배를 타고 있다. 이 불심의 배를 타고 어디로 갈까? 탐원은 유리 궁전으로 간다고 했다. 그런데 그 '유리로 만든 궁전 위에는 지식이 없다.' 유리 궁전은 청정한 불국토를 일컫는데, 그곳에는 더 이상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마음의 문만 열면 과학, 예술, 종교로 치장하지 않아도 온 세상은 진여불성(眞如佛性)이 펼쳐 있는 무봉탑의 세계라는 것이다.

충국사는 말한다. 이제 상대적인 분별이 없는 절대의 경지로 들어가는데 지식으로 만든 유형의 탑을 세워 무엇 하겠느냐고. 만물도 일체의 본유로 있는 것이지 조각난 것이 아니다. 온 우주가 무봉탑이다. 우리는 본래 무영탑으로 태어났다.

일 년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오른 하짓날 정오에는 나도 무영탑이 되어 보리라.

〈작가〉

社 說

군승 파송에 종단 지혜 모아야

군승 파송 미달 사태 해결에 불교계 안팎의 지혜가 모아지고 있다. 출가자 감소라는 총체적인 문제 속에 가장 극명히 드러나는 분야가 군승 파송이라는 점에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본지 설문조사 결과 군승 파송 미달사태로 현역 군승법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군포교 역량의 질적 저하다. 군승으로의 정체성 강화 이후 각종 교육을 통해 역량 배양해 온 조계종 입장에서는 뼈아픈 결과다.

이러한 지적은 이미 조계종 중앙종회에서도 제기됐다. 종회의장 정문 스님은 "출가자 감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청년불자 포교의 최일선에 있는 군승 수급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불교 TO가 감소할뿐더러 단기적으로는 업무부담 가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가제도와 연계한 군승 파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병역 미필 스님들이 3년간 단기 군종장교로 군포교를 수행하는 것을 추진해볼만 하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특위에서 제시된 청년 예비출가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종립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되는 군종사관후보생도 다시 활성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선후배 간의 맥을 잇고, 재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출가 발심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제공해야 한다.

군포교는 한국불교 미래를 일구는 터전이며, 군승법사는 군포교 현장에서의 핵심 자원이다. 군승 수급에 지혜를 모으는 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전국여성불자회, 여성 포교 전환점되길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창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포교원이 전국여성불자회 창립을 앞두고 공청회를 열어 세부적인 조직 계획과 취지 등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국여성불자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지에 대한 방향성과 제언들이 이어졌다.

특히 조계종 신도를 중심으로 한 전국구 여성 조직으로 꾸려진다는 점에서 기대와 관심이 높았다.

다소 늦었지만, 꼭 필요했던 조직이라는 여론도 많다. 그동안 종단이 여성포교에 무심했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불자 조직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약했다는 지적도 함께했다.

무엇보다 씁쓸함도 적지 않았다. 전국여성불자회의 출범이 시대적 요구에 따른 동력으로 추진되기보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종단 정체성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범종단화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점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성불자들의 기대감은 상당했다. 어려움을 계기로 한국불교 여성포교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종단의 의지도 결연하다.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불자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각 교구에 기반한 지역별 · 계층별 · 직능별 세부조직을 통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원력이 한데 모였다.

위기가 기회다. 모처럼 모인 여성불자들의 원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새롭게 출범할 전국여성불자회가 지난 세월 한국불교를 지탱해 온 여성불자들의 신심과 원력, 역량을 기반으로 여성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는 것은 물론, 침체된 한국불교에 활기를 불어넣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